로 이를 紹介하고자 한다。

이 항아리는 帶乳白色釉藥이 全體에 고르게 씌워진 光澤이 아름답고 品있는 作品으로서 鐵砂의 發色이 어떻게 좋던지 금방 顔料가 흘러나릴듯하며 고웁고 부드러운 筆致로 葡萄 넝쿨과 葡萄송이를 無心이 또 自由롭게 그려놓은 珍品이다。

마치 먹이 잘 번지는 얇다란 仙紙에다가 큰붓에 먹을 듬뿍 찍어서 종이야 번지건말건 吾不關焉이라고 悠悠히 水墨葡萄圖를 그려놓은 墨痕淋漓한 東洋畵 一幅을 보는듯한 印象을 받는다。

李朝鐵砂葡萄文壺 中 名品으로 널리 알려진 國立博物館 所藏壺나 梨花女大博物館 所藏壺는 그림이 꽉 짜여서 빈틈이 없을만큼 精妙하게 그려졌으나 이 항아리의 그림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筆致로 유유히 넝쿨을 그린 다음에 큼직한 點을 四·五個씩 찍어서 恰似 큰 梅花꽃같은 적은 葡萄송이를 그렸고 조금 적은 點은 十餘個씩 모아 찍어서 恰似 옥수수 같은 큰 葡萄송이를 그렸는데 鐵砂釉가 흐르고 發色이 잘되어서 水墨畵로 그린 무르익은 荔枝圖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절로 微笑를 자아내게 하는 어수룩하고 구수한 맛과 稚氣滿滿한 느낌을 주기도 하나 자세히 보면、亦是 훌륭한 솜씨로서 前面에는 땅에서 위로 힘있게 뻗어올라가는 가지를 中心으로 넝쿨과 적은 葡萄송이를 그려서 前面 한쪽만은 充實히 메꾸어놓고 항아리全體에는 胴部 위쪽에만 넝쿨을 돌려 그린 다음에 크고 적은 葡萄송이를 석바꾸어 그렸을 뿐 胴部아래는 시원한 白磁항아리 몸體만이 나타나게 餘白으로 남겨 놓았다。

어디인지 近代的 感覺이 짙은 作品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항아리는 高와 徑이 거의 같은 아담하고 安定된 아름다운 形態를 갖추었으며 高臺보다 口徑이 조금 크고 口邊은 外側으로 부터 反轉되어 있다。

항아리 全體에 흐르는 溫雅한 品格이 볼수록 아름다웁고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優秀한 作品이다。

年代는 十七·八世紀를 不下할 것 같고 京畿道 地區內 官窯産으로 생각된다。

全體高 二三·五㎝ 最大徑 二四·二㎝ 壺口徑 一三㎝ 壺口高 一·六㎝ 굽다리徑 一二㎝ 굽다리高 一·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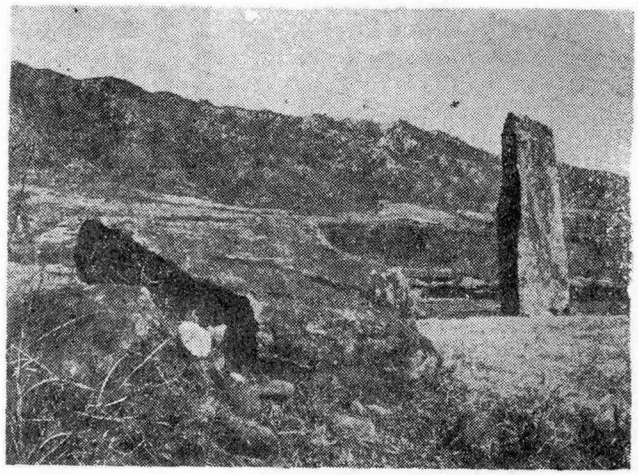
求禮 金內里의 立石·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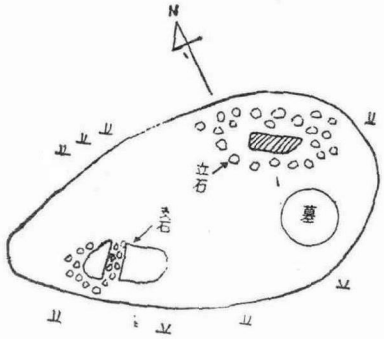
金 元 龍

慶南 河東에서 自動車로 全南 求禮로 가다가 求禮前方 約 六粁쯤되는 地點 道路南方 밭가운데 立石이 하나 서 있다。道路서의 距離는 二百㎙쯤되며 車窓에서도 뚜렷이 보인다。이 地點은 求禮郡 土旨面 金內里며 멀리 白雲山의 高峯이 보이며 그 아래는 蟾津江이 흐르는 廣大한 平野이고 이 立石의 西쪽 좀 떨어진곳에도 支石群같은 塊石들이 있다。

立石이 있는 곳은 周圍水田보다 若干 도두라진 卵形臺地며 全面 잔디로 덮혔고 立石앞에는 李朝期의 조그만 墳墓가 一基 있다。立石은 平面 整梯形의 自然花崗岩이며 넓은 面이 西南을 向하고 現在 地上高 二·四㎙ 最大幅 一·一㎙ 側面幅 〇·三㎙를 算한다。돌 全面에 이끼가 끼어 있는 外에 아무 加工된 痕跡이 없고 立石을 中心으로 直徑 約 三㎙의 不整圓形地域內에는 過히 크지않은 川石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 立石 西南쪽 約 六㎙ 떨어진 位置에는 南式支石墓 一基가 있으며 距離로 보나 地形으로 보나 이 立石과 支石이 서로 獨立分離된





것이 아님이 分明하다。 支石墓는 亦是 花崗岩板石인데 元來의 節理때문인지 둘로 크게 갈려져 있고 上石밑에 따로 支石들은 없으나 바닥 全面에 立石에서 본 바와 같은 川石이 깔려 있다。 至今 둘로 갈라진 것을 合한 長軸길이는 二·六m 最大幅은 一·三m 厚 〇·四m를 算한다。

立石과 支石墓의 關連性은 故 藤田亮策氏도 指摘하고 있으나 (「支登支石墓群」第七章) 이 金內里의 例는 그러한 關聯性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으로 重要하며 南式支石墓가 許多하게 分布하고 있는 全南地方에 立石의 分布가 濃厚한 事實은 무슨 偶然의 一致가 아닌 듯하다。

그리고 求禮것과는 關係없으나 지난번 旅行中에 暫間 본 바에 依하면 隣接한 潭陽郡에도 立石이 있고 特히 여기서는 支石墓가 「스톤써—클」처럼 圓形을 이루며 配置된 것이 눈에 띄었다。

〔附記〕 洞里住民들은 모두 이것을 선들 과인돌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것이 몹시 오랜 것인 줄을 알고 있으나 信仰이나 傳說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 立石 가까이 道路邊에는 直徑 十餘m、高 五m 程度의 高大한 石塚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部落民들은 이것을 石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金銅如來立像

崔 泳 喜

서울大學校 博物館長 李相佰先生 珍藏으로서 金銅如來立像 一軀가 있다。 이것은 數年前에 京畿道 安城사람으로부터 入手한 것인데 그 사람의 말에 依하면 忠南 天安郡 聖居面 天興里 天興寺址 水利組合貯水池 工事場에서 出土된 것이라 한다。

天興寺址라면 그 곳에 現在 國寶 第一七〇號로 指定된 「天興寺址幢竿支柱」가 있고 또 石塔 一基가 있는데 現地에 가보지 못하여 알 수 없고 文獻上으로도 지금 찾아 볼 겨를이 없으므로 詳細한 現地調査 等은 後日로 미루고 于先 이에 紹介만 하는 바이다。

이 佛像은 蓮臺위에 直立한 立像으로 左手指 끝이 損傷되었을 뿐 아직도 鍍金이 많이 남은 完好品이다。 頭部는 比較的 크며 螺髮은 磨滅되었으나 肉髻가 크다。 顔面은 둥글고